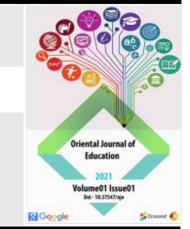
DOI: https://doi.org/10.37547/supsci-oje-05-03-09 Pages: 66-72

Oriental Journal of Education



ORIENTAL JOURNAL OF EDUCATION

journal homepage:
https://www.supportscience.uz/index.php/oje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LITERATURE MUSEUM

Choi Byeong-geun
Ph.D. student
Gyeongg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Natoinal University)
Andong-si, Republic of korea
E-mail: qudrms717@gmail.com

Shin Ho-rim
Professor
Gyeongguk National University (Andong Natoinal University)
Andong-si, Republic of korea
E-mail: shinhr@andong.ac.kr

ABOUT ARTICLE

Key words: Literature Museum,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iterature, Cho Myung-hee, Exhibition.

Received: 26.04.25
Accepted: 28.04.25
Published: 01.05.25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lan using the literature Museum. Cho Myung-hee Literature Museum in Korea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access Korean and Korean literature in a variety of ways, so we discuss the possibi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YS TILINI O‘QITISH JARAYONIDA ADABIY MUZEYDAN FOYDALANISH IMKONIYATLARINI ILMIY TAHLIL QILISH

Choi Byeong-geun
PhD talabasi
Gyeongguk Milliy Universiteti (Andong Milliy Universiteti)
Andong shahri, Koreya Respublikasi
E-mail: qudrms717@gmail.com

Shin Ho-rim
Professor
Gyeongguk Milliy Universiteti (Andong Milliy Universiteti)
Andong shahri, Koreya Respublikasi
E-mail: shinhr@andong.ac.kr

MAQOLA HAQIDA

Kalit so‘zlar: Adabiyot muzeyi, koreys tili ta’limi, koreys adabiyoti, Cho Myung-hee, ko‘rgazma.

Annotatsiya. Ushbu tadqiqot adabiyot muzeyidan foydalangan holda koreys tilini o‘qitish rejasini o‘rganadi. Koreyadagi Cho Myung-hee adabiyot muzeyi koreys tili va

koreys adabiyotiga turli yo‘llar orqali kirish imkonini beruvchi afzalliklarga ega, shuning uchun koreys tilini o‘qitish imkoniyatlari muhokama qilinadi.

АНАЛИЗ ВОЗМОЖНОСТЕЙ ИСПОЛЬЗОВАНИЯ ЛИТЕРАТУРНОГО МУЗЕЯ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Чой Бёнгын
Аспира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ёнгкук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Андон)
г. Андо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E-mail: qudrms717@gmail.com

Шин Хо-рим
Професс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ёнгкук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Андон)
г. Андо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E-mail: shinhr@andong.ac.kr

О СТАТЬ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Литературный музей,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Чо Мёнхи, выставка.

Аннотация. Это исследование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лан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узея литературы. Литературный музей Чо Мёнхи в Корее обладает преимуществом в том, что предоставляет различные способы доступа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литературе, поэтому обсужд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его в об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문학관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가능성에 대한 논의

I. 서론

본 논문은 국내에 건립되어 있는 문학관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국어 배우기’가 열풍이다. 한국어 교육은 이주민의 유입으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같은 K-콘텐츠, 그리고 BTS, 블랙핑크 등 K 팝에 대한 관심 역시 한국어 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열풍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운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어휘나 문법 등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언어 사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송선주, 2014:11]. 그러나 기존 한국어 교육에서 텍스트를 통해 어휘, 문법적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줄곧 문제점으로 여겨져왔다. 이에 윤여탁[윤여탁,

2003:135] 문학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관용어, 속담과 같은 문화어나 문학적 표현으로 구사된 사투리, 의태어 등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김민라는 [김민라, 2014:3] 문학교육이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텍스트-교사 사이의 소통을 통해 텍스트의 고유한 미적 감각을 향유하면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이끌어내는 체험 과정이 된다고 하였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활용은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과 한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쓰기 등 여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어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외국인만이 가능하다. 또한 연령별, 혹은 수준별에 따른 문학텍스트 선정이 어렵고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이 대체적으로 어휘나 의사소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학작품 활용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문학 작품 중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교육에 활용하는 등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필자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 문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한국문학 활용을 넘어 국내에 건립된 문학관을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관은 "문학관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홍보, 교육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와 문학작품은 물론, 전시 콘텐츠 관람을 통해 여러 감각을 활용한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직접 경험하면서 쉽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학관은 외국인에게 하나의 관광지로서 인식될 수 있기에 부담감이 적다는 점에서 문학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II. 문학관 전시 분석과 한국어 교육의 가능성

문학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 수강생들에게 한국문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다만, 한국어 교육의 커리큘럼 전체를 문학관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문학관이 특정 작가와 문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아 단적인 정보만을 전달한다는 단점과 문학관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인프라 문제 등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 각 기관에서 전반적인 교육을 운영하되, 한국문학을 수업하는 일부 차시를 활용하여 해당 문학작품과 관련된 지역문학관을 방문하는, 일종의 교외교육의 한

일환으로 문학관 한국어 교육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국내에 건립된 문학관 중 충북 진천군에 건립되어 있는 조명희문학관의 전시를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전시 분석

조명희문학관에서는 문학관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연표를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암울했던 한국의 문학과 역사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한국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조명희 작가의 작품 창작 배경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어 조명희 작가의 일대기를 정리한 내용이 전시되는데 작가의 출생, 일본으로의 유학, 『김영일의 사』, 『땅 속으로』, 『R 군에게』, 『낙동강』 등의 작품 창작, 일제 탄압으로 인한 소련 망명, 스탈린 강제 이주 정책에 따른 강제 이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디아스포라 문학의 선구자로서, 조명희 작가가 타국에서의 생활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해외 지역에도 영향을 준 인물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포석의 작품활동으로, 조명희 작가의 작품을 평론, 번역, 수필, 소설 등 각 장르별로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작품의 모습을 살펴보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명희 작가의 작품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헤드셋과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다.

문학관에는 조명희 작가의 생가, 조선어 교육 장면을 디오라마로 재현해놓았으며, 조명희 작가의 생애와 활동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영상실도 마련되어 있다. 영상실에는 조명희 작가 및 그의 가족들, 활동 사진들을 함께 전시하면서 조명희 작가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진천, 청주, 부산 등 국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타슈켄트 등 국외 활동을 지도로서 보여주면서 조명희 작가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학관 2 층에는 문학사랑방, 창작사랑방, 문학연수실이 있고, 3 층에는 문학 강의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구축되어 있다. 전시 관람 이후 문학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세미나실을 활용하여 문학과 관련된 토론, 소통 등을 할 수도 있다.

2.문학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가능성

조명희문학관은 조명희 작가와 그의 문학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문화복합기관으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우선,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정적인 텍스트 위주의 교육, 즉 언어, 문법 등 실무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문학관 활용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감각을 활용한

새로운 한국어 교육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조명희 문학관은 디지털 매체의 적용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스크린을 터치하여 작품을 읽고 헤드셋을 착용하여 작품을 듣고, 작가의 작품, 초상, 생가 등의 재현을 통해 직접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문학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작품을 읽고, 듣고, 세미나실, 문학창작실을 활용한 전시에 대한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듣기, 말하기, 쓰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은 문학관 안에 전시된 작가와 문학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한국어를 읽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습득 및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관 활용 한국어 교육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문학관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연령 혹은 난이도에 따른 선택적 문학교육이 가능하다. 조명희 문학관의 경우, 어린이 글쓰기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2025 년에는 "꿈이 자라는 문학관"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초등학생 대상 한국 문학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또한 조명희문학관은 충청북도 문화재단의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란도란 이야기 문학카페'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본 프로그램은 진천군 지역민들의 단합 및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진천군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더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해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문학관의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수준에 따른 한국문학 향유가 가능하고, 전시관람에서 더 확장하여 글을 써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문학관 활동을 통해 한국문학을 포함하여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조명희 작가는 해외에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명희문학관이 외국인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명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조명희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는 조명희 작가와 그의 문학작품이 우즈베키스탄계 외국인들에게 훨씬 더 친근감을 줄 수 있다. 이는 조명희문학관뿐만 아니라 국내 최치원문학관, 이육사문학관 등도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치원의 경우 중국 양주시에 최치원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역사문화를 교류하고 있다. 이육사문학관은 2024 년 중국 상하이에서 해외이육사문학제를 개최하여 육사의 문학세계를 해외에 공유하였고, 2019 년에는 러시아에서 해회이육사문학제를 문학과 k 팝을 접목하여 개최하였다. 이러한 문학관의 해외 활동과 해외에 건립되어 있는 한국문학 공간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문학관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III.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 문학관의 역할과 방향성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에 있어 문학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지원과 문학관 나름의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

전국에 약 144 여 개의 문학관이 있지만 전시 콘텐츠나 문학 전시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 그리고 많은 문학관이 문학전공자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지역문학관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 문학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한국어 교육 커리큘럼과 지역문학관의 연계 시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관의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문학전공자들의 전문인력(학예사 등)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문학관 내 다양한 문학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연령, 수준에 따른 다양한 문학활동을 위해서는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전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점을 통해 문학관은 능동적이고 다양한 문학 경험이 가능한 곳으로서, 여러 문학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문학 교육기관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문학관은 전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학진흥의 거점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관광지로 인식됨과 동시에 한국문학, 한국문화, 한국어 등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복합 교육기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문학텍스트를 두고 어휘나 문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보다 직접 문학콘텐츠를 보고, 듣고, 쓰는 등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많은 문학관에서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는 진천군의 조명희문학관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명희는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며, 문학관 전시에서도 다양한 전시 매체의 활용,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문학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향후 문학관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내의 많은 문학관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한 재정적 문제의 해결, 전문인력의 양성,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학콘텐츠 개발과 전시로의 적용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문학기관과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문학관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을 세부적이기보다 이론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 문학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하여 문학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보다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논문]

1.김민라,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어교육연구』1,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4.

2.송선주,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시를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윤여탁, 「문학교육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보도자료 및 기타]

4.황영민 기자, 「미국학교가 ‘한국어 배우기 열풍’ 불고 있는 이유」, 《이데일리》, 2025. 02. 06.

5.안형준 기자, 「[2019 농촌 ’다문화’ 보고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더

6.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한국농어민신문》, 2019. 04. 12.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5항.